

2020년 세계 철강수요 전망

- 세계철강협회 단기전망(SRO)을 중심으로 -

추지미 수석연구원, 경영인프라연구센터 (jmchu@posri.re.kr)

사동철 수석연구원, 경영인프라연구센터 (dsa@posr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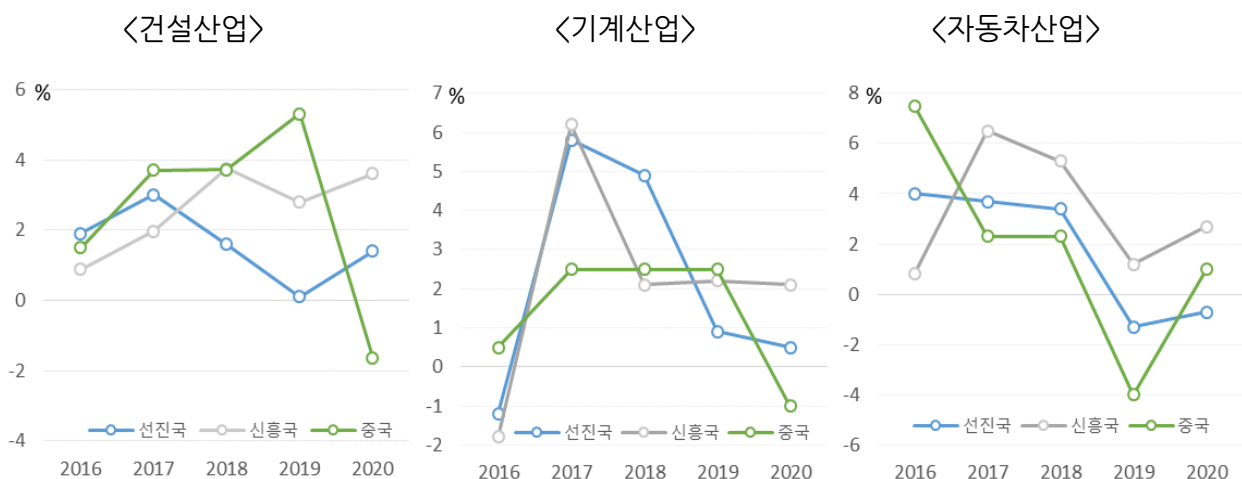
공문기 연구위원, 경영인프라연구센터 (mkkong@posri.re.kr)

목차

1. 2020년은 세계 철강수요에 “Challenging year”
2. 中 수요, 제조업 부진·경기부양 한계로 1% 이하 둔화
3. 선진국 수요, 美·유럽 등 성장 둔화로 정체 우려
4. 신흥국·개도국은 반등 기대 불구 하방리스크 상존
5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글로벌 철강수요는 경제 저성장, 미·중 무역분쟁 지속, 지정학적 갈등, 브렉 시트 등 다수의 하방리스크로 인해 '20년에 증가세 둔화 전망
 - 세계철강협회의 10월 전망에 따르면, '19년 세계 수요는 중국외 지역 수요 정체에도 중국의 예상외 호조로 3.9% 증가한 17.7억톤 추정
 - '20년 세계 수요는 인도, 아세안 등의 신흥국 수요 회복에도 다수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선진국, 중국의 동반 부진으로 1.7%로 성장률 둔화 예상
- '20년 건설, 기계 등 주요 수요산업은 세계 경기둔화 및 투자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 둔화, 자동차산업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전망
 - 건설산업은 세계 성장률 둔화와 금융불안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에도 중국의 호조로 '19년 완만한 성장, '20년 중국의 감소 전환으로 둔화 예상
 -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둔화, 제조업 부진,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'19년 2.3%, '20년 0.4%로 성장세 둔화 우려
 - 자동차산업은 '18~'19년 하강국면에 진입하면서 선진국과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, '20년 다소 회복되나 기술적 반등에 불과

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- 중국 철강수요는 자동차·조선 등 제조업 부진, 대규모 경기부양 한계 등으로 '20년 1.0% 내외 증가에 그쳐, 9억톤 수준에서 정체 예상
 - '19년 중국 수요는 성장 둔화, 美·中 무역분쟁 지속, 환경규제 등으로 1%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7.8%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
 - ※ '19년 中 수요의 7.8% 증가는 유도로 퇴출에 따른 통계적 착시, 실제 4.0% 추정

- 現 수요 증가는 인프라, 부동산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재개와 새로운 안전규제에 따른 신규 건축물의 철강재 채용 확대에 주로 기인

○ 선진국 수요, 美·유럽 등 성장 둔화로 '20년 0%대 정체 우려

- 미국: 경제 성장 둔화 속, 달러 강세와 투자 위축에 따른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으로 '20년에도 0.4% 늘어나는 데 그치는 정체 우려
- EU: 제조업 부진,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'20년 건설·자동차 등 수요산업 회복이 어려워 철강수요도 '20년 1.1%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신흥국·개도국은 印, ASEAN, 중동 주도의 반등 기대 불구 하방리스크 상존

- 인도: 제조업 회복 미흡하나,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 확대에 '20년 7%대 증가 기대
- ASEAN-5: '20년 태국의 반등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인니, 베트남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5.6% 성장 예상
- 기타 신흥국: 터키 불황 타개, CIS·MENA·브라질 증가세로 '20년 호조

○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, '20년 세계 철강수요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

- '20년에도 中 경제 둔화를 비롯한 무역분쟁 지속,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철강경기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시 점검 필요
- 한편,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과 글로벌 무역분쟁 완화 등 발생 여부에 따른 수요 상방리스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 필요

<세계 철강수요 전망>

구 분	강재수요 (백만톤)			증가율 (전년비,%)			기존 전망 대비 (%p change)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	2019	2020
세계 전체 (중국 조정 시)	1,708.6	1,775.0	1,805.7	4.6 (2.1)	3.9 (2.0)	1.7	+2.6	+0.8
중국 (유도로 감안)	835.0	900.1	909.1	7.9 (2.0)	7.8 (4.0)	1.0	+6.8	+2.0
중국 제외	873.6	874.9	896.6	1.6	0.2	2.5	▲1.5	▲0.3
선진국	410.5	410.0	412.5	1.2	▲0.1	0.6	▲0.4	▲0.1
신흥국·개도국	463.1	464.9	484.1	1.9	0.4	4.1	▲2.5	▲0.5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주: 기존 전망은 SRO ('19.4)

1. 2020년은 세계 철강수요에 “Challenging year”

□ 글로벌 철강수요는 경제 저성장, 미·중 무역분쟁 지속, 지정학적 갈등, 브렉시트 등 다수의 하방리스크로 인해 '20년에 증가세 둔화 전망

○ 세계철강협회의 10월 전망에 따르면, '19년 세계 수요는 중국외 지역 수요 정체에도 중국의 예상외 호조로 3.9% 증가한 17.8억톤 추정

- '19년 선진국 수요는 미국·유럽 등의 경기 순환적 하강(Cyclical downturn) 심화와 교역 위축에 따른 제조업 부진으로 0.1% 감소 전망
- 신흥국 수요는 금융불안, 무역분쟁 미해결, 중국 경제 둔화 타격 등으로 '19년 0.4% 증가에 그치는 고전 우려

○ '20년에 세계 수요는 인도, 아세안 등의 신흥국 수요 회복에도 선진국과 중국의 동반 부진 및 불확실성 증대로 1.7%로 성장률 하락 예상

- 선진국 수요는 경제 저성장과 산업생산 둔화로 '20년 0.6% 증가에 그칠 전망
- 중국 수요는 성장방식 전환(rebalancing), 제조업 둔화와 대규모 경기부양 한계 등으로 '20년 1.0% 내외 미약한 증가, 9억톤 내외에서 정체 예상
- 신흥국·개도국 수요는 인도, 아세안, 러시아 등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'20년 4.1% 성장해 세계 철강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

※ 세계 및 중국 수요가 '19년에 각각 3.9%, 7.8%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유도로 퇴출에 따른 통계적 착시이며, 실제로는 각각 2.0%, 4.0%로 추정

〈세계 철강수요 전망〉

구 분	강재수요 (백만톤)			증가율 (전년비,%)			기존 전망 대비 (%p change)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	2019	2020
세계 전체 (중국 조정 시)	1,708.6	1,775.0	1,805.7	4.6 (2.1)	3.9 (2.0)	1.7	+2.6	+0.8
중국 (유도로 감안)	835.0	900.1	909.1	7.9 (2.0)	7.8 (4.0)	1.0	+6.8	+2.0
중국 제외	873.6	874.9	896.6	1.6	0.2	2.5	▲1.5	▲0.3
선진국	410.5	410.0	412.5	1.2	▲0.1	0.6	▲0.4	▲0.1
신흥국·개도국	463.1	464.9	484.1	1.9	0.4	4.1	▲2.5	▲0.5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주: 기존 전망은 SRO ('19.4)

□ '20년 주요 수요산업은 세계 경기둔화 및 투자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 둔화, 자동차산업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전망

○ 건설산업은 세계 성장을 둔화 및 금융불안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에도 중국의 호조로 '19년 완만한 성장, '20년 중국의 감소 전환으로 둔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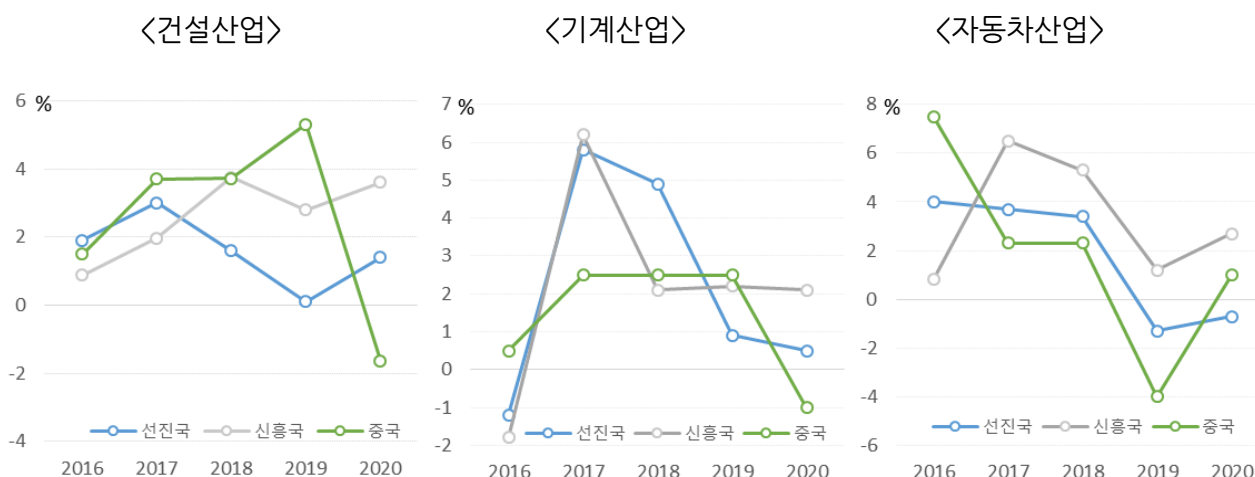
- 미국, EU 등 선진국 건설산업은 가계부채 부담에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거용 건설부문 주도의 소폭 회복 기대
- 중국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위축을 인프라 투자가 일부 만회하나 감소세 전환, 亞 신흥국은 인프라 투자 주도 성장. 인도, ASEAN 등은 인프라 확충 집중
- 반면, 멕시코는 신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단, MENA 지역은 재정문제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 불가피

○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둔화, 제조업 부진,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'19년 2.3%, '20년 0.4%로 성장세 점진 둔화 우려

- 독일, 한국, 일본, 중국 등 주요 기계수출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무역분쟁 타격으로 '20년까지 기계산업의 성장 둔화 예상
- 단, 중국에서는 '19~'20년 교체수요가 발생하고, 신흥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전망

○ 자동차산업은 '18~'19년에 하강국면 진입하면서 주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, '20년 다소 회복되나 기술적 반등에 불과

- 미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은 '19년 시장 포화와 연비 규제 강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전기차로의 전환 등에 따른 대기수요로 침체 심화

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2. 中 수요, 제조업 부진·경기부양 한계로 1% 이하 둔화

□ '19년 중국 수요는 성장 둔화, 美·中 무역분쟁, 환경규제 등으로 1%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7.8%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

○ 중국 철강수요는 경기 둔화와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제조업 부진으로 당초('19.4) 1.0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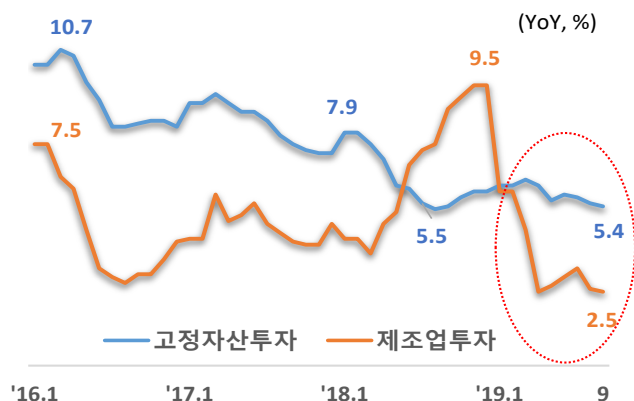
-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美·中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, 성장방식 전환, 제조업 부진 등으로 '19년 (1Q) 6.4%→ (2Q) 6.2%→ (3Q) 6.0%로 낮아지는 상황

- (고정자산투자) 제조업 투자 둔화로 '19.1~9월에 5.4%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세 둔화기조 지속, 연중 최저 수준

※ 고정자산투자 증가율: 8.1%('16)→ 7.2%('17)→ 5.9%('18)→ 5.4%('19.1~9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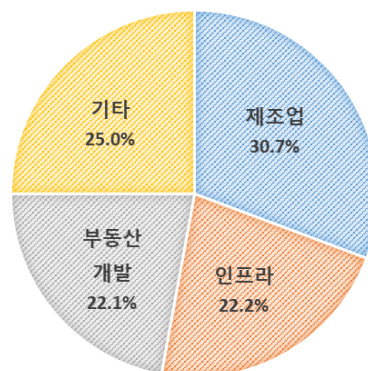
- (제조업 투자) 美·中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자동차, 전자 등의 직접적 타격 및 과잉설비업종(화학, 연료, 비금속광물 등)의 구조조정 등으로 '19.1~9월 2.5%로 증가율 대폭 하락

〈고정자산투자 및 제조업 투자〉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, CEIC

〈고정자산투자 부문별 비중〉



주: 명목, 누계 기준

□ 現 수요 증가는 인프라, 부동산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재개 및 새로운 안전규제에 따른 신규 건축물의 철강재 채용 확대에 주로 기인

○ (인프라 투자) '19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한도 증액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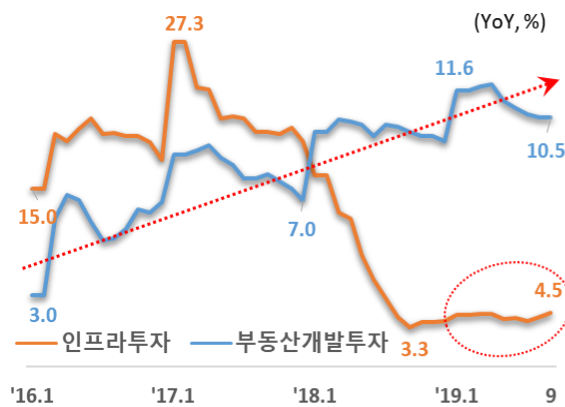
- '19년 3월 정부는 인프라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RMB 1.35조('18)→ RMB 2.15조('19)로 확정

- 철도, 고속도로 등 대규모 운송인프라가 크게 확대되면서 인프라 투자는 7월 3.8%→ 8월 4.2%→ 9월 4.5%로 완만한 개선

○ (부동산개발 투자) 부동산 매매거래 제한의 일부 완화 및 낙후 지역의 주택재개발 수요 증가로 '1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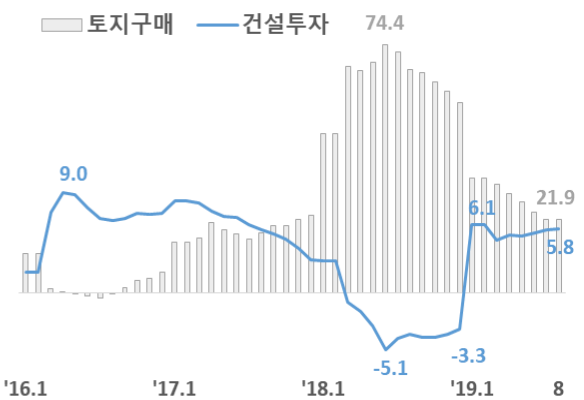
- '19년 4월 광저우 등 12개 도시의 주택판매제한조치(신규주택 매입 후 통상 2년) 만기 도래에도 재연장 없이 종료되면서 민간 매매거래 활성화
- 또한 '19년 건축물 시공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토지구매 증가율이 20% 내외로 높은 수준 유지, 건설투자는 6% 내외 안정적 증가세

〈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〉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, CEIC

〈세부 항목별 부동산개발 투자(%)〉



주: 명목, 누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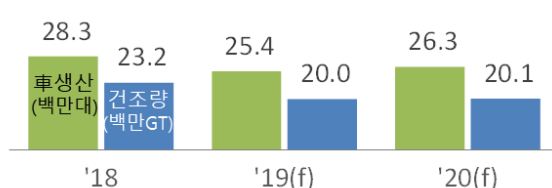
□ '20년 중국 철강수요는 자동차·조선 등 제조업 부진, 대규모 경기부양 한계 등으로 1.0% 이하 증가에 그쳐, 9억톤 수준에서 정체 예상

○ 중국 수요는 제조업 부진,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하방리스크 고

- 자동차 생산의 미미한 반등, 조선 수주 부진에 따른 건조 정체 예상
- 건설경기, 민간 거래활성화 도모에 따른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으로 개선 여지 있으나, 정부 대규모 부동산개발 계획 지양 및 부채 부담 등으로 본격 회복 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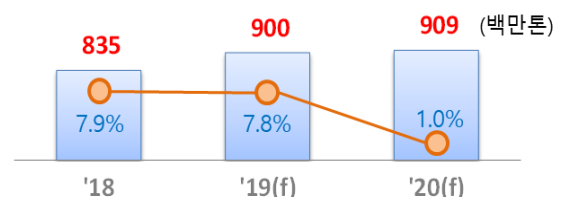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무역분쟁 타결 및 기대 이상의 경기부양책 등 상방리스크 동시 상존

〈중국 자동차 및 조선산업 전망〉



자료: CRU, Clarkson

〈중국 철강수요 전망〉

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3. 선진국 수요, 美·유럽 등 성장 둔화로 0%대 정체 우려

□ 미국: 경제 성장 둔화 속, 달러 강세와 투자 위축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부진으로 '20년에도 0.4% 늘어나는 데 그치는 정체 우려

○ '20년 건설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부양효과 약화로 감소세 지속, 자동차산업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 어려울 전망

- 건설투자는 성장 둔화와 부양효과 약화로 '19년 3.7%, '20년 1.9%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 예상

- 자동차 생산은 '19년 1.7% 감소, '20년에도 0.3% 증가에 그치는 부진 예상

☞ 한편, 美 철강수요는 환율, 무역분쟁 향방 등에 따라 역성장 가능성 상존

□ EU: 제조업 부진,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'20년 건설·자동차 등 수요산업 회복이 어려워 철강수요도 '20년 1.1%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경제 성장 둔화, 대외여건 악화, 브렉시트 우려 등의 여파로 수요산업도 본격 회복이 어려울 전망

- 건설산업은 에너지, 운송 등 토목투자 확대에도 獨, 스페인 등의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'20년 1.3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

- 자동차 생산은 '19년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'20년 2.2% 증가 전망

○ '20년 獨·佛·英 등 주요국 철강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치나 '19년보다 개선

☞ 유럽철강연맹(Eurofer, '19.7)은 '20년 EU 철강수요가 1.4%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, 세계철강협회보다 0.3%p 높게 전망

□ 일본: 소비세 인상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, 기계 등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강수요도 '20년까지 2년 연속 감소 예상

○ 수요산업은 소비세 인상 영향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회복 어려울 전망

- 건설투자는 소비세 인상('19.10)에 따른 주택 선수요 소멸,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'20년 1.0% 증가에 그칠 전망

- 자동차 생산은 내수 위축 가운데,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감소 예상

〈선진국 철강수요 전망〉

구 분	강재수요 (백만톤)			증가율 (전년비, %)			기존 전망 대비 (%p change)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	2019	2020
미국	99.8	100.8	101.2	2.1	1.0	0.4	▲0.3	+0.1
EU28	168.9	166.8	168.6	3.6	▲1.2	1.1	▲1.5	▲0.1
독일	39.6	37.2	37.8	▲3.5	▲6.0	1.5	▲5.1	+0.1
영국	10.8	10.9	11.0	▲1.6	0.4	0.9	▲0.8	▲0.7
일본	65.4	64.5	64.1	1.6	▲1.4	▲0.6	▲0.4	+0.2
선진국	410.5	410.0	412.5	1.2	▲0.1	0.6	▲0.4	▲0.1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주: 기존 전망은 SRO ('19.4)

4. 신흥국·개도국은 반등 기대 불구 하방리스크 상존

□ 인도: '19년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나 '20년 수요는 고성장 회귀 기대

○ 제조업 회복 미흡하나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 확대에 '20년 철강수요는 7%대 증가 기대

- '19년 철강수요는 그림자 금융 붕괴에 따른 유동성 경색,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5.0% 성장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

※ 자동차 생산, 신용경색에 따른 구매력 위축과 보험부담 증가로 1~9월 13.0% 감소

- '20년 철강수요는 자동차 생산 4~5% 반등,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의 경기 부양에도 '19년 부진을 만회하기에 한계 예상

☞ 최근 모디 2기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이 '20년 철강수요 회복에 관건

□ ASEAN-5: 대외 불확실성에도 인프라 투자로 '20년 5%대 성장 예상

○ '20년 ASEAN-5 철강수요는 태국의 반등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인니, 베트남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5.6% 증가 기대

- '19년 ASEAN-5 철강수요는 태국(▲2.9%), 말련(2.0%) 등의 부진으로 당초 예상치(5.6%)를 하회한 3.1% 증가에 그칠 전망

- 인도네시아: 인프라 투자에 따른 건설수요 호조로 '20년 6.0% 증가 예상
 - 태국: '19년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및 건설용 수요 증가로 '20년 20만톤 내외 회복 전망
 - 베트남: 견조한 경제성장 및 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'20년 7.0% 증가해 25백만톤 돌파 기대
- ☞ 중국 경기 둔화를 비롯해 환율 변동 확대 등 금융불안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여파에 따라 철강수요 성장률 축소 가능성 내재

□ 기타 신흥국: 터키 불황 타개, CIS·MENA·브라질 증가세로 '20년 호조

- CIS: 철강수요는 기저효과 및 유가 상승으로 '19년 당초 예상보다 높은 4.8% 증가, '20년에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소폭 둔화 예상
 - 러시아: '20년 철강수요는 유가 변동에도 '2024 국가프로젝트(National Projects)'에 따른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1.5% 증가 전망
 - 브라질: 철도, 항만 등 인프라 설비 확충으로 '20년 4.6% 증가 기대
 -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로 인한 과도한 투자 및 정치 부패에 따른 경제 불황이 완화되면서 '20년 철강수요도 회복 예상
 - 터키: 금융불안 완화, 산업생산 재개 및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'20년 철강수요는 6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리라화 가치 급락 등 금융불안 확산('18.8월)으로 건설, 자동차 등 수요산업도 빠르게 침체되면서 '18~'19년 철강수요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
 - 반면, '20년 수요는 금융불안 진정에 따른 산업활동 정상화 속, 정부의 민간협력 대형 인프라 사업 확장에 힘입어 6.0% 증가 기대
 - MENA: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및 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타격 지속에도 2년 연속 철강수요 감소의 기저효과로 '20년 반등 예상
 - GCC(걸프협력회의): 카타르-사우디 간 균열에 따른 GCC 분열 우려, 사우디 석유시설 피폭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'20년까지 감소 지속 전망
 - 이란: 美 경제제재, 중동지역 정정불안에도 기술적 반등으로 '20년 증가 예상
- ☞ 터키, MENA 등 일부 신흥국들은 美·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대 및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으로 '20년 전망치 소폭 하향 조정

〈신흥국·개도국 철강수요 전망〉

구 분	강재수요 (백만톤)			증가율 (전년비, %)			기존 전망 대비 (%p change)	
	2018	2019	2020	2018	2019	2020	2019	2020
인도	96.7	101.6	108.7	9.1	5.0	7.0	▲2.1	▲0.2
ASEAN5	77.1	79.5	83.9	4.9	3.1	5.6	▲2.6	+0.1
CIS	55.3	58.0	59.2	1.9	4.8	2.0	+3.4	+0.4
러시아	41.2	43.2	43.9	0.7	5.0	1.5	+4.0	0.0
브라질	21.2	21.7	22.7	8.6	2.1	4.6	▲2.5	▲1.0
터키	30.6	26.1	27.7	▲14.9	▲14.5	6.0	▲9.6	▲2.0
MENA	68.9	66.1	66.9	▲4.0	▲4.0	1.1	▲3.4	▲0.7
신흥국·개도국	463.1	464.9	484.1	1.9	0.4	4.1	▲2.5	▲0.5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19.10

주: 신흥국·개도국은 중국 제외,

주: 기존 전망은 SRO ('19.4)

5. 시사점

□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, '20년 세계 철강수요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

- '20년에도 中 경제 둔화를 비롯한 무역분쟁,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철강경기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므로 상시 점검 필요
 - 중국은 경제 둔화 및 제조업 부진 등으로 철강경기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 - 더욱이 미-중 무역분쟁 장기화, 홍콩문제, 미-이란발 유가불안, 브렉시트 등 초유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됨
- 한편,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과 글로벌 무역분쟁 완화 등 발생 여부에 따른 수요 상방리스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 필요
 - 중국의 건설경기를 비롯한 자동차, 기계 등의 제조업 동향과 경기부양책, 환경규제 등의 정책 변화를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·관찰해야 함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CRU, Industrial and Economic Outlook, September 2019

Eurofer, Economic and Steel Market Outlook 2019-2020, July 2019

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October 2019

Clackson, World Shipyard Monitor, September 2019

한국은행,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, 2019.7

[홈페이지]

세계철강협회 (<http://www.worldsteel.org/>)

중국자동차공업협회 (<http://www.caam.org.cn/>)

중국국가통계국 (www.stats.gov.cn/)

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(<http://ecos.bok.or.kr/>)

한국자동차산업협회 (<http://www.kama.or.kr/>)

한국철강협회 (<http://www.kosa.or.kr/>)

CEIC (<http://www.ceicdata.com/>)